

순천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로 남해안 벨트 핵심도시 성장기대

노관규 시장 “수도권 대항 남해안 벨트 허브기능·도시재편” 복합쇼핑몰 유치·경전선 도심 우회, 지방소멸 위기 극복 호재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남해안 벨트의 핵심 도시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4일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가 도시재편의 기점이 되고 이에 따른 관광 트렌드도 변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찾아올 관광객을 8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1조 5926억 원, 부가가치 유발 7156억 원, 고용 창출 2만 5149명으로 추정했다.

시는 정량적 효과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박람회가 끝나면 인접 도시들까지도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관광의 트렌드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남해안 벨트의 핵심 도시 기능으로 재편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박람회 개막식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인구

절벽의 해법으로 삼고 있는 만큼 실제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취지다.

순천정원박람회 개최가 도시 재편의 기점이 된다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유치는 수도권 소비권을 지방으로 끌어올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유치를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의 경우 인근 지자체와 경쟁하는 단순 쇼핑몰이 아닌 지방 소멸 시대에 수도권에 대항하고 소비권을 남해안으로 이끌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

복합쇼핑몰이 관광객을 유입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에 따른 낙수효과로 지역의 음식점, 관광지, 숙박 등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열린다. 2023정원박람회는 노 시장의 의지에 따라 10년 전 2013정원박람회와는 달리 웰니스 트렌드를 반영해 과감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맨발 걷기 길인 어싱길(earthing)이 순천만 습지와 저류지 정원, 순천만국가정원 3개 권역

에 7개 코스로 조성된다.

세계자연유산 순천만습지의 어싱길(4.5km)은 바다와 갈대를 보면서 걸을 수 있어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체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박람회장 주변 농경지 373ha에 유색미와 화훼를 심어 꽃 속의 도시를 연출하는 경관 정원, 특정구역에 마련된 ‘가든 스테이’ 등이 달린 점이다. 정원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이 가능토록 조성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했던 국책사업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화룡점정 역할도 가능하며 나아가 동서 화합을 이끄는 ‘화개장터 형 프로젝트’로 지역 통합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순천정원박람회 개최와 맞물려 모든 것이 가능하기까지는 경전선의 도심 우회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전선 우회와 도심 철로의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상승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남해안권의 사람과 물류를 소통시킬 경전선이지만, 기존 노선을 유지해 매일 수십차례 도심을 지나다닐 경우 미래 큰 그림에 역행할 것이라는 걱정이 큰 실정이다.

노관규 시장은 “100년 만에 철도를 손대면서 일제 강점기에 설치한 철로 그대로 도심 중심부로 고속전철이 통과하는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순천은 남해안 벨트 중심으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중심축이면서 전라선과 연결돼 수도권으로 교류가 가능함에도 전철화 사업이 가장 늦게 추진되고 있고 단선 철로로 계획됐다”며 “도심 관통을 반드시 철회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전선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관심 표명이

국토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노 시장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지난 정부에 추진됐지만 도심을 통과할 경우 호남의 커다란 대못이 될 수 있고 국가발전에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한다...업무협약 체결

여수교육지원청·여수경찰서와 협약

여수시가 지난 3일 시청실에서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와 함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협약식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이념과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아동·청소년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할 여수시를 만들기 위한 상호협력에 약속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여수시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기반으로 통합된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해간다는 계획이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아동의 권리와 교육, 홍보, 아동 교육정책에 협력하며, 여수경찰서는 폭력과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시와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가 힘을 합쳐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무엇보다 안전한 여수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이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보성군, 전라남도 ‘지역특화조립’ 공모 선정

2023 고소득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준비 박차

보성군이 2023년 전라남도 ‘지역특화조립’ 공모에 선정돼 산림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보성군은 2023년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7억 1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개 지구에 34.5ha규모로 특화 조립 사업을 추진한다. 개암나무(헤이즐넛)과 호두나무 등 2종을 집중 식재해 고소득 임산물 생산단지를 가꿔나갈 계획이다.

사전 준비작업으로는 대상지 입목벌채 허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입목벌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 식재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효율적인 재배 및 경영관리로 투자 대비 소득을 높이기 위해 타 재배지역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경영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기동취재본부

고흥 유자·석류 축제 준비 착착

10일부터 13일까지...최종 점검 실시

고흥군은 고흥군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2022 고흥 유자·석류축제’를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풍양면 유자석류축제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셋노라 유자밭 가운데 축제장을 만들어 고흥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가까이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흥군전

속예술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퍼포먼스 후 송가인 라이브커머스와 미니콘서트를 비롯한 크고 작은 공연으로 축제의 개막을 알릴 계획이다.

‘고흥 유자랑 석류랑 힐링~ 힐링!’을 주제로 ‘유자 찌고·선물 받고·힐링하고’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축제장을 고흥 유자 첫 재배지인 대청마을의 ‘대한민국 유자 1번지길’과 양리마을 ‘유자 금은보화 돌레길’로 확장해 관



람객들이 추억을 쌓고 힐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제3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 개최

광양·포항·당진시 3개 도시·제철소, 시민단체 등과 머리 맞대

광양시는 철강산업도시 광양·포항·당진시(이하 ‘3개 도시’)와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당진제철소(이하 ‘3개 제철사’)의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 및 적극적인 참여방안 모색을 위해 ‘철강산업도시의 탄소중립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다’란 주제로 제3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을 오는 10일 오후 광양시 백운아트홀

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광양·포항·당진시 관계 공무원, 3개 제철사, 지역 환경단체, 제철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철강산업 분야의 동향과 기술개발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더 늦기 전에 철강산업도시와 제철소가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